

주일 예배 순서

- 성탄 후 제1주 / 송년주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13:1-4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1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53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 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펜데믹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저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환난과 위 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강한 팔로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뻐 하고 즐거워하나이다. 만물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시편 115:1-13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봉 헌(offering) 2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75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 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2.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금) 저녁 9시에 있습니다. 8시부터는 간식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3. 고 송용희집사님의 장례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토네이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임하시도록. 피해복구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시 115:1-3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2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8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이다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 대소 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이다

1.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1-3절) 나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4-8절)
3.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9-13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또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인간의 행복행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비인격적인 사물들을 사용해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더이상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굳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